

우리 모임에선

'성원' 정상화 기원법회

성원그룹 화의신청 서명운동본부(본부장 해충, 부산감로사 주지)는 2일 부산 국제문화센터 4층 대강당에서 성원그룹 정상화를 위한 기원법회를 봉행하고 성원그룹의 화의신청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제주 약천사 회주 해인스님을 법사로 초청해 진행된 이날 법회에는 8백여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한편 그동안 진행된 성원그룹의 화의신청을 전국에서 18만명이 동참했다.

법륜회 장애인 차량봉사



광림사 법륜회(회장 신광욱)는 10월 22일 15명의 지체부자유자와 함께 양평 용문사로 성지순례를 다녀왔다(사진).

법륜회는 회원택시 10여대를 동원하여 광림사 신도들과 함께 거동이 불편한 지체부자유자 15명을 휠체어에 태워 사찰순례와 법회를 봉행하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광동학원 교직원법회

광동학원(이사장 일연스님) 교직원 합동법회가 26일 남양주 봉선사에서 1백여명의 교직원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법회에서 화엄스님은 법문을 통해 "모든 생활은 마음자리에 따라 보는 눈도 달라지기 마련이다"며 "종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인 만큼 더욱더 신중히 힘써 정진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심우회 육군교도소 위문

심우회(회장 김명원)는 1일 장호원 육군교도소를 방문하고 수감장병들을 위문했다. 이날 행사는 위문법회에 이어 2부에서는 위문공연과 다과회를 가졌다.

국민회의 부산·경남 연등회

실직자 생활관 개원



◇국민회의 부산·경남 연등회는 1일 부산 연산5동에 실직자생활관을 개원했다.

부산에 1백10평규모의 실직자 생활관이 개원됐다. 국민회의 부산·경남연등회(회장 사상호)는 1일 성오스님(부산불교연

50명 수용규모...취업상담·건강진료 스님 초청법회로 마음 위안 배려도

합회장) 국민회의 박상규 부총재, 조성준의원들 사부대중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산 5동 우정주차장 2층에 실직자를 위한 생활관을 개원했다.

이날 개원식에서 사상호회장은 "재활의지를 북돋우고 실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실직자 생활관은 법당과 취침공간 양호실 상담실 등의 시설을 갖춰 50명을 수용하게 된다. 노숙자들은 생활관에서 숙식하며 취업상담과 인성상담을 하고 생활에 복귀하게 된다.

실무자인 김영대씨는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생활하도록 배려할 방침이다"며 "조식예복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일과 후 스님들의 초청법회를 통해 마음의 안정과 긍정적인 삶의 가치를 형성하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경남연등회는 지난 6월부터 매주 일요일 1시 부산역광장에서 실직자들에게 무료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연등회는 무료급식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를 모집하고 있다. (051)852-0813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opia.com)

직장·직능법회 활성화 모색

28·29일 대표자 연수 전국연합회 결성 준비

직장·직능법회 대표자 연수회가 28·29일 수원 용우사에서 열린다.

조계종 포교원이 주체해 2회째로 열리는 이번 연수회는 전국에서 70여명의 직장·직능법회 대표자들이 참석해 '직장·직능법회의 현황과 과제' 토론회와 운영사례 발표, 직장·직능법회 활성화를 위

한 간담회 등으로 진행된다. 조계종포교원 고원수과장은 "경제난으로 인해 직장·직능단체가 침체일로에 있어 활성화가 시급하다"며 "이번 연수회를 통해 전국 직장·직능단체 연합회 결성 준비위 결성 등 실질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들 방침"이라고 밝혔다.

접수마감은 11월 25일이며 회비는 2만원이다. (02)720-7060 김원우 기자 (www.kim@buddhopia.com)

한국불교언론인회

대구·경북지회 창립

한국불교언론인회 대구·경북지회 창립총회가 10월 31일 진제스님, 도원스님과 통화사주지 성덕스님, 신광식 한국불교언론인회회장 등 1백여명의 사부대중이 참가한 가운데 대구 불교방송 7층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총회에서 불자언론인들은 동지적 유대감으로 불불홍보에 앞

장서고 올바른 불자의식으로 정진할 것을 부처님전에 다짐했다.

임원에는 회장에 이성순(대구불방 국장), 부회장 이하석(영남일보 논설위원) 전병철(대구MBC 부국장) 이준달(KBS 대구방송총국 부장) 김수평(대구방송 부장) 문종규(세계일보 부장), 감사 이윤호(현대 불교신문 기자), 사무국장 정운철(대구불교방송 기자)씨 등이 선출됐다. 이윤호 기자 (yilee@buddhopia.com)



◇부산불교연회는 10일 창립 10주년 기념법회를 개최했다.

무의탁노인 14명에 생활비

부산불교연회 창립 10돌...BBS 후원금도 전달

부산불교연회(회장 백봉도) 창립10주년 기념법회가 10월 29일 코모도호텔 충무홀에서 열렸다.

성오스님(부산불교연 회장)이 운근 前 부산불교신도회장등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날 법회에서 백봉도 회장은 "달리는 법당으로 부처님의 법을 전하겠다"며 "앞으로도 계속 정진하는 불자들이 될 것"을 다짐했다.

부산불교연은 이날 조금순 할머니 등 무의탁노인 14명에게 총 3백만원의 생활비와 부산불교방송에 후원금 3백만원을 전달했다.

88년 1백50여명의 회원으로 창립한 부산불교연회(회장 백봉도)는 각종 법회를 통한 신심증진과 함께 불우이웃돕기, 자연보호운동, 자원봉사등의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천미희 기자



고암대종사 열반 10주기 추모법회

前 조계종 종정 고암대종사 열반 10주기 추모법회가 3일 해인사 용담선원(도감 순민)에서 봉행됐다. 이날 법회에는 해인총림 방장 법전스님을 비롯 국불석경 정원 일타 도겸 송길 고봉 해운스님 등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석했다. 만상과 국봉스님(80세)은 "전라남도 나주 다보선원에서 수십년간 큰스님을 시봉한바 있다"면서 "큰스님은 계율이 청정하신 율사이자 선사로서 자비심이 남다른 분이셨다"고 회고했다.



수서경찰서 경승실 법당 개원

수서경찰서 경승실(실장 지암·불광사 주지)은 2일 오전 10시 수서경찰서 경승실 법당 개원 및 부처님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지암(불광사 불광법회 주지) 지광(능인선원 주지) 법연(불광사 부주지)스님을 비롯 불광사 능인선원 신도 등 사부대중 5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됐다.

수서경찰서 경승실은 앞으로 정기법회, 상담 등을 통한 경찰포교를 실시할 계획이다.



부산불교방송 제1회 찬불합창제

제1회 부산BBS 찬불합창제가 5일 부산BBS합창단, 관음사 관희합창단, 진각종 유가합창단등 부산지역 9개합창단이 참가한 가운데 부산시민회관에서 열렸다. 부산불교방송(사장 류진수)이 마련한 이날 제1회 합창제에는 5백여 사부대중이 동참하여 찬불가를 통해 신심을 다졌다.

부산불교연합회 성오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찬불가속에 담긴 내용은 모두 부처님 말씀의 핵심이다"고 말했다.

제29대 총무원장 선거에 따른 특별기자회견

제29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를 둘러싼 갈등이 점점 극한 상황으로 치달고 있습니다. 송월주 현 총무원장의 무리한 3선 욕심이 근원이 된 종단 내의 갈등은 이제 그 정도를 넘어서 자칫 총무원장 선거는 물론 94년 종단개혁 이후 세워진 현 종단체제 전체가 파괴될지도 모르는 위기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정식 입후보 절차까지 마친 일부 후보자와 탈선자들이 종정 이하의 뜻을 왜곡하여 종단을 초법적인 상태로 끌고가려는 의도가 점점 노골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매우 심각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본인은 제 29대 총무원장 후보 이전에, 바로고 여법한 종단을 세우기 위한 일념으로 94년 개혁불사의 선두에 섰던 중도의 한 사람으로서 현재의 종단적 위기상황에 대한 책임있는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 먼저, 극도로 심각한 혼란상을 보이고 있는 작금의 종단적 위기의 최대 원인은 현 송월주 총무원장의 종권야욕이 빚어낸 불법적인 3선 출마 강행에 있음을 밝힙니다.

오늘의 종단혼란상은 송월주 총무원장이 개인의 종권욕에 탐착하여 중도들의 의견을 구하기에 앞서 자신의 3선 출마를 세간법에 먼저 의지하면서부터 이미 예견되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종단의 원로대덕스님들은 물론 전 중도들이 애정어린 충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한 채 불법적인 3선 출마를 강행한 송월주 총무원장은 현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총무원장 청사에 철창을 치면서까지 자신의 종권욕을 채우려는 야심은 중도들에게 서의한 체제의 악몽을 되새기게 하는 모습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종정예하의 교시까지도 전연적으로 무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탈선자들에게 중도의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고 나아가 종단은 혼란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뿐만아니라 종정예하와 원로스님들을 모시는 예의가 전혀 없고, 독단과 독선의 행태로 일관하여 결국 각종 불미스러운 사태가 생겨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송월주 총무원장에게 있음을 다시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 종현 질서를 부정하면서까지 3선 출마를 강행한 송월주 총무원장은 제29대 총무원장 후보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밝힙니다.

누구보다도 모범적으로 종현중범을 호치하고 종단의 위계를 바로 세워 종단 개혁에 매진하여야 할 총무원장이 4년간 전 중도를 불화와 갈등구조로 몰고 왔고, 인기처세주의로 일관해오면서 오로지 자신의 종권욕에 힘써 종현질서를 문란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송월주 총무원장은 종현중범에 근거하여 처리되는 제29대 총무원장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물론 출마 자체가 종단에 위해를 입히는 해종행위는 사실을 깨닫고 하루 빨리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종정예하께서 교시하신 내용과 교구본사 주지스님들께서 종정예하의 교시를 봉행하겠다는 결의에 따라 이미 송월주 총무원장은 후보자로서의 그 자격이 상실되었음을 확인하며, 실사 끝까지 선거를 치루는데도 그는 합법적인 후보자가 아니므로 무효표가 됨을 중도들에게 알리는 바이며 선관위에서도 이 점을 명확히 인식하기 바랍니다.

송월주 총무원장은 이제라도 종단 지도자답게 대중앞에 참회하고 3선 출마기도를 즉각 포기할 것을 준엄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 종정 예하의 교시는 반드시 옮겨 받들어 져야 하며, 종정예하의 뜻을 왜곡하여 종단 분규를 획책하는 일부 후보자와 탈선자들은 즉시 참회하고 자중할 것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현 송월주 총무원장의 3선 출마가 야기한 혼란의 틈을 타고 종단을 분규로 몰아 종권을 강탈하려는 세력들은 즉시 자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종정예하의 3선 불가에 대한 뜻을 아전인수로 해석하여 종단 분규의 명분으로 활용하려는 구종권세력과 해종행위자들은 즉각 그 기도를 중단하여야 합니다.

그동안 일부 후보자 진영에서는 종단을 초법적인 상황으로 몰고가는 선거일정 파괴의 주장이 공공연히 흘러나왔고 또한 탈선자들과의 연계설로 많은 중도들이 우려하였던 바, 일부 후보자 진영에서 주도하였던 종정예하 교시봉행 정전대회에서 그것이 사실로 드러났음에 경악을 금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탈선자의 대포격 되는 사람이 연단에게까지 앉아 있었고 해종행위자들이 대거 동참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동안 중도들의 지지를 받으며 진행되어 온 3선 반대운동의 도덕성과 순수성을 결정적으로 훼손하는 심각한 상황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특히, 종단으로부터 탈선에 처한 자들과 내통해오고 있었다는 항간의 소문과 같이 종정교시 봉행위원회의 행사에 탈선자와 해종행위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해 앉아 있었던 월탄스님은 작금의 종현중범질서를 지키고 모든 중도들이 염원하는 선거를 치루고자 하는 뜻이 있는지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송월주 총무원장의 용퇴만이 분규로 치달고 있는 현 종단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본인은 향후 어떠한 상황이 발생되더라도 94년 전 중도들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종현중범을 수호하는데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대처해 나갈 것임을 전 중도들에게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 끝으로, 국가적으로 어려운 이 때에,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위안과 희망을 주어야 할 승단이 내부의 문제를 자율적으로 수습하지 못하고 대중집회나 일반 언론을 통해 갈등하는 모습을 표출시켜 결국 불교의 위신을 실추시키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서 총무원장 후보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에게 진실로 참회의 마음을 전하는 바입니다.

불기 2542년 11월 5일

제29대 총무원장 후보 지선 합장